

홀로 된 여성노인의 성

이 경 회 윤 가 현

송원대학 사회복지과 전남대학교 심리학과

(요약) 본 연구는 홀로 된 여성노인들의 성욕을 표출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성의식의 변화를 탐색한 것으로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응용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언어적 의사소통 능력이 원활하며, 인지적 능력에 결함이 없으며, 사별이나 이혼 후 재혼하지 않은 상태의 65세 여성노인 5명이었다. Giorgi(1985)가 제시한 4가지의 구체적 단계들에 의거해서 성에 대한 면담내용을 분석했는데, 그 결과 ① 노화에 따른 성적변화의 양상, ② 성적 존재로서의 자각, ③ 성욕표출의 양상, ④ 사회문화적 환경의 수용, ⑤ 성의식의 변화의 5개의 구성요소가 추출되었다. 홀로 된 여성노인들은 노화에 따른 성적 변화의 과정을 경험하면서 스스로를 성적인 존재로 자각하며, 성욕을 표출하는 과정에서 사회문화적 환경을 수용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각 구성요소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그로 인한 성의식의 변화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욕의 표출은 성행위 등으로 직접적으로 표출하는 유형, 억제하는 유형 및 다른 일로 성욕을 승화시키는 유형의 세 가지로 나타났으며, 각 유형에 따라 사회문화적 환경의 영향이 다르게 드러났다.

[Key words: 노인, 성의식, 현상학적 연구, 홀로 된 여성노인]

이 논문에 대한 일체의 서신왕래는 (우) 503-742 광주광역시 남구 송하동 365번지 송원대학 사회복지과 이경희 교수 앞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교신저자(이경희)의 e-mail 주소는 nuah@songwon.ac.kr입니다.

의료기술이나 과학의 발달 및 식생활 개선 등으로 대다수 근대 문화권에서는 인간의 수명연장과 노인인구의 급증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타 문화권에 비해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빠르게 전개되고 있는데, 그 결과 노인인구의 비율 2019년에는 14.0%를 넘어 고령사회(aged society) 그리고 2026년에는 20.0% 정도로 초고령사회(ultra aged society)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통계청, 2001).

고령화 사회에서의 발생하는 문제들 중 하나는 배우자 없이 살아가는 노인들의 성욕 발산에 관한 것이다. 2000년부터 2001년까지 세계 각국 40~80세 남녀의 성에 대한 태도와 행동을 조사한 ‘화이자 글로벌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 60세 이상 노인들의 89%가 성을 중요하다고 답했는데 이는 세계 평균(73%)보다 더 높은 수치에 해당된다. 성에 대한 높은 관심과는 별도로 성에 대한 무지, 잘못된 인식, 그리고 사회적인 편견과 무관심은 성 매매나 황혼 이혼 등의 사회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반면에 유교적 윤리나 가치관에 입각하여 살아온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도 사회 전반적으로 여성노인의 성과 관련된 문제를 축소시켜버리는 경향이 강한 편이다.

우리나라 노인인구의 혼인 상태를 살펴보면, 배우자자 있는 비율이 52.0%이며, 나머지는 사별(47.0%), 이혼(0.7%), 미혼(0.3%)으로 홀로 살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통계청, 2000). 또 홀로 된 자들의 대다수가 여성인데, 그 이유는 평균수명이 남성보다 길고 또 결혼 연령이 남성보다 더 늦을 뿐만 아니라 사별하더라도 남성처럼 재혼을 쉽게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곧 홀로 된 여성노인은 노인인구의 커다란 하위집단으로서 독특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노년기의 성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노년기에서는 상실감이나 고립감, 외로움으로 인해 성욕을 갈망함과 동시에 그 갈망이 죄책감으로 이어져 성욕을 억제하면서 살아간다 (Nay, 1992). 또 성욕이 있더라도 우울, 단조로움, 해결되지 않은 슬픔, 분노, 수행불안 등과 같은 심리적인 요인들 때문에 제대로 발산되지 못하고 있다 (Ebersole & Hess, 1994). 여성노인들에 초점을 맞춘 연구결과들을 살펴보면, 여성의 성이 단순히 남성의 성에 대한 반응이라기보다는 신체적인 만족뿐만 아

홀로 된 여성노인의 성

나라 그들의 삶이나 인간관계, 정서의 맥락에서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Altschuler & Katz, 1996; Fooker, 1994).

전통적으로 농경사회였던 우리나라에서는 성을 자녀 생산을 위한 기능적 행위로만 여겼던 탓에 여성이나 노인의 성을 웃음거리로 만들게 되었다 (이운숙, 1990). 곧 남성위주의 강압적인 성생활로 인한 종속적인 상태에서 여성의 성욕표현은 수동적인 형태를 취해야만 정상으로 간주되었다 (신성례, 1996). 그로 인하여 우리나라 여성노인들의 성은 은밀한 곳에서 낮은 목소리로만 이야기되어지며 스스로의 성을 거부하는 태도로까지 이어지게 된다. 따라서 여성노인들의 시각과 사고의 틀을 배제한 상태로 연구자의 시각에서 구성된 질문지법 조사는 여성노인들의 성에 대한 그들의 표면적인 사고나 행위의 이면에 감추어져있는 진실 이해에 한계가 클 수밖에 없다.

성을 사회문화적 차원의 상호작용에 의한 역동적 개념 및 발달적인 관점에서 재 조망되어야 할 개념으로 볼 때 여성노인들의 성에 대한 접근은 그들의 인간적인 권리를 존중하는 측면에서의 신중하고 진지한 태도로 일관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생물학적인 신체 기능에 치우치지 않고 노인들의 발달주기와 다양한 삶의 현상학적인 조건들 속에서 노년기를 홀로 보내는 여성노인 개개인의 구체적인 성생활을 살펴보아야 한다. 여성노인들이 인간의 기본적 욕구인 성욕을 표출하는 과정에서 사회문화적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기인한 성의식의 변화를 탐색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연구 방법

현상학적 연구

현상학적 연구는 동일한 현상에 대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인간의 경험을 이해하는 질적 연구방법의 하나이며, 그 목적은 연구에 참여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의미를 포함한 살아있는 경험에 대한 의식의 구조를 탐색하기 위한 것이다 (Creswell, 1998). 이런 목적은 홀로된 여성노인들의 다양하고 풍부한 생애 경험과 시대에 따라 변하며, 그 속에 역동적으로 어우러진 성을 깊이 있게 연구하기 위해 개개인의 존재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전제로 하는 본 연구에 부합된다. 그 중 Giorgi(1985)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은 연구 참여자인 홀로 된 여성노인이 구술한 자료의 분석과 해석을 통해 그 경험들의 공통된 구조와 그 구조를 이루고 있는 구성요소들 간의 관계를 일관성 있게 기술하기 때문에 홀로 된 여성노인의 성"에 있어 그들이 성생활 경험에서 겪게 되는 성의식의 변화라는 현상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과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

연구절차 및 연구대상자 특성

본 연구에 적합한 대상자 선택에서 표본추출의 적절성을 충족시키기 위해 사용한 표집방법은 두 가지로 먼저 예비 면담 후 연구목적에 맞는 대상을 선정하는 편의 표본추출 방법을 사용하여 17명의 참여자를 확보할 수 있었다. 그리고 참여자들이 필수적으로 연구될 현상을 경험하여야 하기 때문에 기준 표본추출 전략을 적용하여 최소 2회에서 최대 5회의 심층 면담을 하였고, 추출된 구성요소가 가장 풍부한 5명(사례번호는 3, 7, 8, 9, 10번으로 부과했음)의 자료를 최종적인 분석에 사용했다.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사별이나 이혼으로 인해 홀로된 여성들 중 65세 이상인 자들에게 연구 참여의사 및 녹음기 사용에 대한 구두 동의를 받았다. 예비조사는 2005년 3월부터 4월에 걸쳐 2명의 여성노인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고, 예비조사가 끝난 후 본 연구는 2005년 9월부터 2006년 1월 사이에 진행되었다. 본 연구의 최종 분석에 포함된 참여자들의 연령은 60대가 3명, 70대가 2명이었고, 5명 모두 사별로 인해 홀로 된 자들이었다. 그들 중 3명은 단독으로 거주하고 있었고, 2명은 기혼자녀와 함께 살고 있었다. 학력은 초등학교 졸업 1명, 고등학교 졸업 3명, 그리고 대학 졸업이 1명이었다. 배우자와 결혼생활을 했던 기간은 28~47년이었고, 사별 후 독신으로 지낸 기간은 2~30년이었다.

자료 분석

면담이 끝나는 대로 참여자가 사용한 언어를 그대로 전사하여 녹취록을 만들어두고 분석해나갔다. 기술된 자료들은 녹음 내용을 반복 청취하

홀로 된 여성노인의 성

먼저 녹취록과 대조해서 부족한 부분을 수정하고 나서, 텍스트 분리 작업을 실시했다. 텍스트 분리작업 실시는 Giorgi(1985)의 설명대로 5단계로 시도했는데, 첫째, 먼저 면담 내용 전체에 대한 느낌을 파악할 수 있도록 여러 번에 걸쳐 녹취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으며, 둘째, 녹취록을 읽은 후 연구현상인 홀로 된 여성노인의 성에 초점을 맞춰 심리학적 관점을 가지고 ‘의미단위’를 구분했으며, 셋째, ‘의미단위’를 구분한 후에는 참여자의 일상적인 표현들을 심리학적인 용어로 전환하는 작업을 시행했으며, 넷째, 전환된 각각의 ‘의미단위’들에서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경험이라고 생각되는 ‘의미단위’들을 묶어서 26개의 하위 구성요소들을 추출했으며 (홀로 된 여성노인의 성욕 표출과정에서 겪게 되는 성의식의 변화의 본질적 구조를 보여주는 하위 구성요소들을 묶어 총 5개의 구성요소를 도출함), 마지막으로 전환된 의미단위들을 홀로 된 여성노인이 성욕표출 과정에서 겪는 성의식 변화라는 연구현상에 대한 일반적 구조적 기술로 통합하였다.

연구의 엄격성을 위한 고려

본 연구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Lincoln과 Guba(1985)가 질적 연구에서의 엄밀성을 평가하기 위해 세운 4가지 기준들을 적용하도록 노력했다. 첫째, 사실적 가치(true value)를 만족시키기 위해 도출된 결과를 가지고 연구 참여자의 원 진술로 돌아가 그 내용이 일치하는지를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작업을 거쳤으며, 둘째, 적용성(applicability)을 만족시키기 위해 충분한 자료가 나올 때까지 연구 참여자와 여러 차례의 만남을 가졌다. 셋째, 일관성(consistency)을 위해 본 연구의 자료 분석 과정에서 성에 관한 질적 연구를 하고 있는 다른 연구자와 의견을 자주 나누었으며 질적 연구 모임에서 연구과정에 대한 평가도 받았다. 넷째, 중립성(neutrality)을 지키기 위해 면담 도중에 의미가 불명확한 부분의 진술에 대해서는 바로 참여자가 말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재확인하는 질문을 하여 의미를 명료하게 하였다. 그리고 연구자가 지닌 홀로 된 여성노인의 성에 대한 지식 등이 연구에 개입하여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연구자가 가지고 있는 선 이해나 편견 등을 연구 노트에 기록하여 반복해서 검토했다.

구성요소의 추출

홀로 된 여성노인들의 성욕표출 과정에서 겪게 되는 성의식의 변화 현상을 통해 모두 5개의 구성요소와 26개의 하위구성요소들이 추출되었다. 그 구성요소들은 홀로 된 여성노인이 생애후반의 성생활 경험을 통해서 상호작용하면서 성의식을 변화시키는 요인으로 작동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 과정을 명확히 보여주기 위해 먼저 하위 구성요소별로 조직적 기술(textural description)을 했는데, 사례에 포함된 축어적 예를 주로 사용하였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추출된 구성요소를 이루는 각 하위 구성요소들 간의 맥락을 연결하여 그것이 어떻게 경험되었는가, 즉 홀로 된 여성노인의 성경험이 지니고 있는 모든 의미와 관점들을 찾기 위한 자유로운 상상적 변형(free imaginative variation) 또는 구조적 기술(structural description)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여성노인들의 경험의 의미와 본질에 대한 전반적 기술을 하였다. 구성요소와 하위구성요소들은 다음과 같이 분류되었다.

- 1) 노화에 따른 성적 변화의 양상: 자유로움, 호기심, 성생활 감소, 성욕의 은근한 지속, 무성적 존재, 성욕의 개인차 인식
- 2) 성적 존재로서의 자각: 성욕 인식, 성적 자극에 대한 반응, 존재 의미로서 성, 성적 표현이 주는 자신감
- 3) 성욕표출의 양상: 표출 (직접적 성행위, 자위행위), 억제 (대체적 활동), 승화 (접촉을 통한 정서적 위안, 성적 환상)
- 4) 사회문화적 환경의 수용: 순결이데올로기, 노화의 이중기준, 사회적 환경, 죽음 대비
- 5) 성의식의 변화: 유희의 성, 관계의 성, 성생활에서의 태도변화, 불평등한 성역할 인식, 정서적 위안의 성, 성의 조율, 시대 변화에 적응

각 구성요소에 대한 조직적 기술 및 구조적 기술

- (1) 노화에 따른 성적 변화의 양상

홀로 된 여성노인의 성

① **자유로움**: 폐경기를 전후로 홀로 된 여성노인은 자신이 여성이기에 겪어야 했던 활동상의 제약이나 임신과 같은 생식의 제약으로부터 벗어나게 된다. 게다가 남편의 통제 없이 혼자 살고 있다는 자각은 노년기의 삶에 있어서 자유로움을 느끼게 하는 요인이 된다.

월경이 끝나버리니까 나는 활동을 편하게 하고 그런 게 좋기도 하고, 이젠 혹시라도 잘못돼서 임신할 일은 없겠구나 생각하니, 홀가분하대.

(사례 3)

어차피 간섭할 남편도 없고 자유롭게 혼자 사는 인생인데. (사례 8)

② **호기심**: 여성노인 중 일부는 성에 대한 호기심이 발현되는데, 이러한 호기심은 이제 굳이 사회의 시선을 의식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신의 성을 통제할 남편이 없다는 사실은 호기심을 직접적인 행동으로 옮기게 하는 동기가 되었다.

뭐가 좋다 그러면 호기심으로도 한 번씩 사서 해보게 되고 그러지. 그 전에는 없던 호기심이 생기더라고. 뭐, 어떡냐 싶어. (사례3)

호기심도 생기고, 또 주책없다 할지 몰라도 혼자 사는 인생인데 거리낄 것도 없고 하니 호기심이 생겼던 거지. (사례 8)

③ **성생활 감소**: 한 참여자는 성욕이란 몸으로 느끼는 것인데 30년 가까이 성생활을 하지 않은 탓에 성욕이 거의 사라졌다고 하였다. 사별하기 직전 배우자가 오랫동안 아팠던 참여자의 경우(사례9) 나이가 들면 상대 부재로 성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기분이 더 좋지 않게 되었다고 하였다.

거의 느끼지 않아. 30년 동안 수절하면서 살다보니 그런 게 없어진 거 같아, 몸하고 마음이 연결이 되어 있어서 몸으로 그런 일을 안 하니 생각이 없어져, 나는 1년에 한 두 번이나 그런 생각이 드나? (사례7)

영감이 나보다 나이가 많았거든. 몸도 안 좋고 그런데다 뭘 어떻게 해 달랠 수가 있어야지. 그래, 나이를 더 먹어서 이제 이런 마음이 생겨도 해결하기가 힘들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더 기분이 안 좋더라고. (사례 9)

④ *성욕의 은근한 지속*: 한 참여자는 여성노인들의 성은 장작불처럼 뜨겁게 타오르는 것이 아니라 화로에서 은은하게 열기를 품고 있는 숯불과 같다고 표현하였다. 자극을 받는다고 해서 금방 반응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반응을 보이며 또한 은근하게 지속이 된다는 것이다.

성욕을 느끼기는 하지만, 그것이 젊었을 때처럼 참을 수 없다든가, 격렬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지.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는, 그런 욕망 같은 것도 변한다니까. 뭐랄까? 은근히 타고 있는 화로의 숯불 같은. (사례 10)

⑤ *무성적 존재*: 홀로 된 여성노인들은 폐경 후 처음으로 느끼는 생각이 스스로를 무성적 존재로 여긴다는 것이다. 또한 사별을 통해 동반자를 상실한 데 대한 허전함과 외로움을 느끼지만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기에는 두려운 마음이 된다. 그리고 노화가 계속 진행되고 사별 후 홀로 지내는 기간이 경과되면서 자신의 성욕 감소를 느끼게 되고 그에 대해 허전함을 느끼게 된다.

나는 딱 멘스가 끊기고 나니까 내가 이제는 여자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사례 7)

갱년기가 되면서 월경이 끊기고 그러니까, 마음이 참 허탈하고, 뭔가 속 내 가슴 속에서 빠져나간 것 같고 그랬는데, 아! 참, 내가 이게 이제 여자도 아니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사례 9)

영감이 나 혼자 두고 간 것도 속상하고, 서운하고, 어서 빨리 나도 가야지 했다가도 사실은 죽는 것이 두렵고 그렇지. 나는 이제 남녀간의 그런 것도 잘 못 느끼고 하니, 허전하고, 그렇지. (사례 10)

⑥ *성욕의 개인차 인식*: 참여자들이 성욕을 느끼는 정도는 개인마다 달랐다. 성욕을 느끼는 정도에 따라 이를 해소할 상대를 적극적으로 찾아 성생활을 즐기려 하는 경우도 있었고, 대체 활동을 통해 억제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성욕을 느끼는 정도에는 개인차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

사람마다 성욕을 느끼는 것이 다르겠지만. (사례 3)

사람마다 다를 거야. 어떤 사람은 나이가 70이 넘어도 남자 몸이 옆에 없으면 못 자는 사람도 있다고 하고. (사례 7)

내 말은, 그걸 느껴도 못 풀면 아주 심하게 스트레스를 받는다거나 할 정도는 아니다 이 말이지. 어떤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사람도 있어. (사례 9)

홀로 된 여성노인들은 폐경을 경험하면서 자신이 여성도 남성도 아닌 무성적인 존재가 아닌가 하는 착각을 하게 된다. 그러나 곧이어 생리적 현상으로 인한 활동 제약이나 임신과 같은 생식의 제약들로부터 자유로워졌음을 발견하게 된다. 배우자의 통제나 가족이 주는 제약 없이 홀로 자유롭게 살고 있다는 현실은 때로 여성노인들에게 성적인 것에 대한 새로운 호기심을 유발시키기도 한다. 여성노인의 내면에 감추어져 있던 성적 호기심은 새로운 성적 경험에 대한 직접적인 행동을 추동시키기도 한다.

여성 노인들의 성욕에 따른 반응은 강도가 약하거나 그 속도가 느릴 수는 있지만, 성욕이나 반응 자체가 없는 것은 아니다. 참여자들은 사별이나 이혼에 이어지는 오랜 독신 기간 동안에 성생활의 감소로 인해 어쩔 수 없는 성욕 감소와 함께 스스로를 무성적인 존재로 여기게 되는 것과는 달리 성욕을 느끼는 정도는 개인차가 큰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들은 대부분 자신이 성욕을 해소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지는 않는다고 하였는데, 이는 여성의 성욕을 자제나 조절이 가능한 것으로 여긴 사회적 통념을 수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2) 성적 존재로서의 자각

① **성욕 인식**: 참여자들에게 있어 성욕은 다른 무엇보다도 자신이 아직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임을 확인시켜주는 증거가 되며, 신체적인 감각을 통해 얻은 기쁨과 만족감을 경험하게 된다.

말로 표현을 못해도 마음속으로야 좋지. 기쁘지, 성욕이 있다는 건 내

가 펄펄 살아 움직이는 사람이란 것을 말보다 백배로 보여준 것인데.
(사례 7)

내가 노인이 되어도 그런 느낌이나 욕망이 여전히 있구나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았는데. (사례 9)

(수줍게 웃은 후) 내가 이렇게, 느낄 것을 다 느끼면서 잘 살아가고
있는 것에 대해 만족감을 느낀다. 그렇게 성적인 생각도 하고 아직 몸으
로 그런 것을 느낀다는 게. (사례 10)

② *성적 자극에의 반응*: 여성노인들은 드라마나 영화에 자주 등장
하는 키스신 등의 시각적인 성적 자극들을 접하고 그런 자극들에 반
응하게 되고, 그 때 느꼈던 성적 감각들을 시각을 통하여 재인식하는
과정을 통해 성적 흥분을 일으키기도 한다. 성적 자극들에 여전히 반응
하는 자신의 신체를 통해 여성노인들은 스스로를 성욕이 남아있고 이
를 표현할 수도 있는 성적 존재로 자각하게 된다.

드라마 같은데서 남녀가 나와 키스하고 그러는 장면이 좀 많이 나오
나? 그런 장면 보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흥분이 되고 그래. (사례 3)

젊은 사람들 연애하고 그러는 드라마 보고, 뽀뽀하고 그러는 것을 보
면 가슴이 울렁거리고. (사례 7)

내가 어쩌다 야한 장면 같은 거, 그런 걸 보거나 하면 내가 몸에 어떤
거를 느끼거든. 그럼 아직 내가 여자로 살아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
(사례 8)

주로 영화 같은 것 보면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많지. 남자, 여자 키스
하고 껴안고 좀 진하게 사랑하는 장면 있잖아? 그런 것을 보면 나도 모
르게 몸에 느낌이 오더라고. (사례 10)

③ *존재의 의미로서 성*: 한 참여자는 성이란 자연스런 본능으로 노
인이 되었다고 해서 성이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죽기
전까지 그 기능이 있는 한 가능한 것이므로 성생활을 지속하고 싶다
고 한다. 참여자들은 노화로 인해 신체 기능이 쇠퇴하기는 했으나 여
전히 감정이나 사고는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들에게도 성욕은 여
전히 존재하고 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홀로 된 여성노인의 성

노인들이 성생활 하는 것을 이상하게 보는 것이 더 이상한 것이야. 노인이라고 사람이 아닌 것도 아니고, 그러라고 타고난 것인데. (사례 3)

노인도 성에 대한 생각도 있고 행위도 가능하고 그렇지. 남녀 간에 만나서 접촉하고 그러면 흥분도 되고. 체력이 좀 떨어져서 그렇지. (사례 8)

노인이 되어도 여자는 여자고 남자는 남자다. 성이 노인이 된다고 갑자기 딱 하고 발걸음을 끊듯이 그렇게 없어지겠는가! (사례 9)

나이가 든다고 바뀌면 그게, 타고난 자연스런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겠어? 노인들한테 성이 어떤 의미가 있다고 해도 절실하지는 않겠지. 그렇지만 그래도 노인들도 다 그게 필요하지. (사례 10)

④ *성적 표현이 주는 자신감*: 직접적인 성행위를 통해 성욕을 표현하고 자신들의 젊었던 시절과 같은 성적 행동이나 사고를 하게 됨으로 인해서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러한 자신감은 신체적인 노화와는 별개로 자신의 건강에 대해 심리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같이 자고 나니까. 몸도 더 젊어진 것 같고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 건강도 좋아진 것 같고. (사례 3)

내가 젊은 시절의 그런 감정이라든가, 욕망 같은 것을 그 때랑 똑같이 내 몸을 통해서 느낄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라고 할까? 그런 것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 (사례 8)

노화를 겪고 있는 노인들은 모든 감각 기능들이 쇠퇴하고 있음을 알고 있으며, 따라서 신체를 통해서 바로 지각될 수 있는 성욕이 아직 자신에게 존재한다는 사실은 그들에게 자신의 신체가 아직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증거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아직 성욕을 지닌 존재라는 인식은 여성노인들에게 기쁨과 만족감을 주게 된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소개되는 러브신과 같은 시각자극들은 마땅히 성에 관한 대화나 성생활을 함께 할 상대가 없는 독신의 여성노인들로 하여금 그들의 과거를 회상하게 만드는 코드가 된다. 이런 자극코드들이 성욕을 표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계기가 되어 감춰져있던 성욕을 표출하게 된 여성노인들은 여전히 ‘성적 존재’라는 사실을 자각하며 적극적인 활동을 행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갖게 된다.

(3) 성욕표출의 양상

① *접촉을 통한 정서적 위안*: 여성노인들 중 일부는 성욕을 표출하는 과정에서 직접적인 성행위 등은 통증이 수반되기도 하므로 그 대신 입맞춤이나 포옹 등 가벼운 접촉을 선호하게 되며, 후자와 같은 신체적 접촉을 통해 편안하거나 기분 좋은 느낌을 얻는다.

몸을 만지면 성적으로 참을 수 없을 만큼 흥분된다. 이것보다는 마음이 편해지고 기분 좋을 만큼 힘이 솟는다고 할까? 마음으로 그냥 참 좋게 느껴질, 그런 정도로, 지금은 몸을 만지고 이러면 마음속에서부터 무엇이, 그것이 참 따뜻하게 느껴지는 것인데. (사례 10)

② *성적 환상*: 성욕을 표출할 상대가 없는 연구 참여자 또는 상대가 있어도 상황이 여의치 못한 자들은 성적 환상으로 성욕을 해소하기도 했다. 상상의 내용은 매우 적극적이고 노골적이기도 하는데, 그런 환상을 통해 가상적이더라도 자신에게 헌신적인 남성의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함을 느끼게 한다고 하였다.

여자들이 주로 많이 하는 게 ‘생각을 한다.’인데, 남편이랑 했던 그런 생각은 아니고, 조금 더 은밀한 생각이지. 좀 노골적인 상상을 하는데, 생각 속에서는 오직 나만 위해서 봉사를 하니까, 그게 좋지. (사례 10)

③ *대체 활동*: 성욕을 해소하는 또 다른 방식으로 성이 아닌 다른 일에 대한 생각을 떠올리거나 산책이나 취미활동을 하게 된다. 또 밭 일이나 집안 청소, 이불 빨래처럼 신체를 많이 움직이는 힘든 일을 해서 성욕을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하는 경우들도 있었다. 성욕이 젊은 시절처럼 강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성욕을 억제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지금은 좀 지나면 금방 없어져버린다. 그래도 안 없어지면 밭에 나가서 밭일도 하고, 힘든 일을 좀 해. 젊어서처럼 그렇게 강하게 느끼지는 않으니까 아무래도 금방 가라앉더라고. (사례 7)

홀로 된 여성노인의 성

자연스럽게 풀릴 때까지 다른 일을 마구 하지. 집안 청소도 하고, 묵은 이불 빨래 같은 것도 하고, 그래도 마음이 찝찝하면 산책을 하고 나면 기분이 풀리는 거 같애. (사례 9)

④ *직접적 성행위*: 이성교제를 하고 있는 여성노인의 경우 직접적인 성행위를 통해서 성욕을 표출할 수 있었는데, 그 관계를 통해 만족감을 얻었다. 다른 참여자는 동성과 친밀한 교제로 시작했던 관계가 성행위로까지 연결되었으며, 그런 관계를 통해 결혼생활에서는 별로 느껴본 적이 없었던 만족감을 얻을 수 있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서로 껴안아 주고 입도 맞추고 그랬지. 몇 번 만나고는 둘이 같이 잤어. 나보다 젊어서 그런지 자꾸 보채서. 우리 집으로 가서 잤지. 시간이 꽤 걸리기는 했어도 둘 다 아주 만족했어. (사례 3)

내가 섹스에 환장한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도 그런 상황이 되고 하니 까, 같은 여자하고 되더라. 나중에 생각해보니 남편하고 했을 때도 그리 좋았던 적이 없는 것 같은 거야. (사례 8)

⑤ *자위행위*: 성욕을 느끼고 있다고 말한 한 참여자는 자위행위를 통해 성욕을 해소하였다. 다른 참여자(사례8)는 특별했던 성적 경험 이후에 자위행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버리고 스스로를 위해 자신의 성욕 표출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택하게 되었다고 했다.

여자들이 많이 하는 방법이 있지. 그래. 자위를 하기도 해. 우리 둘이 했던 생각도 하고 그런다. 여자들이 쓰는 기구 같은 것이 옛날에도 있었어. 남편 죽고 얼마 안 되어서는 사귀는 사람이 없으니 그런 것을 사용해서 풀었지. (사례 3)

그러면서 내가 자위를 하게 됐어. 그 전에는 아무래도 혼자서 그렇게 풀고 그러는 것을 안 좋게 생각했었는데 생각이 바뀌더라고. 내 몸인데 내가 나를 위해 그런 행위도 못하나 싶고. (사례 8)

홀로 된 여성노인들이 성욕을 표출하는 양상은 표출과 억제, 그리고 승화시키는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났다. 표출하는 형에서는 직접적 성행위나 자위행위와 같은 양상으로 나타났다. 성욕을 억제하는 형에서는

산책이나 집안 일, 취미활동 같은 대체적인 활동으로 성욕을 소멸시키려 하였다. 승화시키는 경우 성적 환상이나 가벼운 접촉만으로 심리적 만족감을 얻는 양상으로 나타났다.

성욕표출에서 승화시키는 유형의 여성노인들의 경우 오랫동안 성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성 호르몬 분비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성교 시 통증을 느끼기 쉽다. 이런 이유로 여성노인들은 직접적인 성행위에서 오는 즐거움이 아니라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더 원하기 때문에 포옹이나 가벼운 어루만짐으로 충분히 행복한 감정을 느낄 수 있고 그런 이유로 가벼운 신체적 접촉을 선호하게 된다. 환상으로 성욕을 해소하는 연구 참여자(사례 10)의 경우 자신의 성적 욕망을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별한 남편이나 주변의 아는 사람, 가상적 인물을 대상으로 성적 환상을 품게 되며 이런 환상을 통한 성욕의 승화가 행복감을 준다고 하였다. 이처럼 여성노인들에게 있어서 성욕 표출은 삶의 질 차원에서도 큰 의미가 있는 것이다.

성욕을 해소하기 위해 다른 생각을 떠올리거나 신체를 많이 움직이는 일을 해서 성욕을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하는 경우(억제형; 사례 7, 9) 오랜 기간 성생활을 하지 않아서 성욕을 짧은 시절처럼 강렬하게 느끼지 않기 때문에 수동적인 방식으로 성욕을 해소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이성교제를 하고 있는 여성노인의 경우(사례 3) 직접적인 성행위를 통해서 성욕을 표출하고 있었는데 근래 남편과 사별하기 전까지 성생활을 꾸준하게 즐기고 있었던 분이었다. 그리고 동성 간의 지속적이고 친밀했던 교제가 직접적인 성행위로까지 연결되는 경우(사례 8)도 볼 수 있었다.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성문화를 접해온 여성노인의 경험에는 그 당시의 상황적 맥락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런 경험은 이성애 중심의 성행위만을 알고 있고 실천하던 참여자의 성의식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기도 한다. 자위행위를 통해 성욕을 표출하는 참여자들은 대체로 성생활 경험으로 인하여 자신의 성욕을 강하게 인식한 경우이다. 자위행위를 하는 여성노인들은 자신들의 성경험을 통해 자위행위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면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성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하였다.

(4) 사회문화적 환경의 수용

① *순결이데올로기*: 여성노인들은 자식들이 자립할 수 있는 연령에 이르렀을 때 주변의 친지들로부터 재혼의 권유를 받았다. 그러나 스스로 아직 여자로 대우받고 싶다는 심리적 욕구와 여자는 한 번 결혼하면 정조를 지켜야 한다는 윤리 규범에 얽매어 살아와서 사별한 남편에 대한 죄책감으로 심리적 갈등을 느끼곤 했다. 여성은 항상 순결을 지켜야 한다는 교육의 영향으로 재혼이나 이성교제에 대한 생각을 쉽게 하지 못하고 살았기 때문이다.

30년 동안 수절하면서 살다보니 그런 것이 없어진 거 같아. 나를 좋아하는 사람과 재혼해버릴까 하는 생각도 하고 했어. 그래도 그럴 수 있나? 남편한테 죄스런 마음이 많이 들어서, 여자가 한 번 시집갔으면 현 여자인 마찬가지인데 (사례 7)

여자는 죽으나 사나 순결을 지켜야 한다는 얘기를 늘 했지. (사례 8)

② *노화의 이중기준*: 참여자들은 여성들의 외모관리가 남자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하면서도 자신이 아직도 의복이나 몸매에 신경을 쓰고 있음을 여성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또 다른 참여자(사례 9)의 경우 사회에서 남성노인과 여성노인을 대하는 기준이 서로 다를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노인네가 무슨 미용에 신경 쓰냐고 그러지만 아직도 내가 여자긴 한가봐. (웃음) 참, 나이를 먹어도 옷 입는 거나 몸매나 신경 쓰는 걸 보면. (사례 7)

남자노인들한테 안 그러는데 여자가 늙어서 가꾸고 그러면 추하다고 하고 안 가꾸면 여자는 늙어도 자기를 가꿔야 한다, 그러고 남자가 그러면 다 멋있다고 하고, 우리들은 그런 거 많이 느끼지. (사례 9)

③ *사회적 환경*: 연구에 참여한 여성노인들은 모두 성욕이 존재한다고 말하면서도 남녀 노인의 이성교제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 시각과 가족들의 시선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여성노인들은 성에 대한

표현, 자신의 자연스런 성을 인식하는 것과 성욕을 표출하는 것 등에 있어서 노인의 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 남녀의 성에 대한 차별과 같은 사회적 환경의 요소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 영향을 받고 있었다.

우리나라에선 남녀 노인들이 자유롭게 교제하고 그러는 것도 자식 눈치보고, 이웃 눈치보고, 그러지 않나? (중략) 나이가 들어 사람을 만나고 그러는 것이 시간이나 세간의 이목도 있고 그런데. (사례 7)

지금 이 나이에는 그런 관계를 위해서 이성상대를 만나고 싶은 생각은 없어. 늙어서는 자연스럽게, 곱게 늙어가는 것이 중요하지, 남 보기 부끄럽지 않게. (중략) 내 방이 있다 해도 언제 손자들이 들어올지 모르고. (사례 9)

남자들이 늙어도 다들 자기보다 젊은 여자 바라는 게 남자들이고, 참! 한 살이라도 더 어린 여자를 찾아요. (사례 10)

④ 죽음의 대비: 연구 참여자들은 남편과 죽음이라는 형태로 이별한 경험이 있었다. 의미 있는 타인과의 사별이 주는 상실감을 극복하기 위하여 새로운 동반자를 만나 심리적 위안을 얻고자 할 경우, 그 사람을 다시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도 수반된다. 새로운 이성을 동반자로 만나게 되면 죽음이라는 피할 수 없는 현상을 다시 경험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은 새로운 만남의 추구보다도 스스로의 건강을 관리하는데 주력하게 만든다.

언제 폭 꼬꾸라질지 모르는 게 노인들인데, 그렇게 늙어 정주고 사귀다가 한 편이 병들어 갑자기 쓰러지면 그 마음을 어떻게 달래겠나? (사례9)

마음 주고 그러다 먼저 가버리면 그 상처를 어떻게 견뎌? 남편이 죽었을 때보다 충격이 더 크더라고. 사람이 노인이 되면 아무래도 젊어서만 못하지, 건강이. 그러니까 언제 죽게 될지 몰라... 그냥 혼자서 건강하게 사는 게 최고다 싶지. (사례 10)

연구 참여자들은 대부분 이성과 교제하고 싶은 욕구가 있지만 막상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성교제나 재혼의 권유가 있을 때 심리적 갈등을 느낀다고 한다. 그들은 사별 후의 상실감 등을 새로운 상대를 통

홀로 된 여성노인의 성

해 위로받고 싶어 하지만, 또 사별한 남편에 대한 죄책감 등의 도덕적 갈등을 느끼기 때문에 어떤 선택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면서 대부분은 여성노인들에게 부여하는 이중적 규범(남성노인의 재혼은 허용하지만 여성노인의 재혼에는 부정적인)과 ‘순결이데올로기’에 얽매이게 된다. 또한 여성노인들은 자신들의 성욕이 정당함을 스스로 수긍하지 못하고 있었다. 노인에게는 성이란 무의미한 것이며 특히 여성들에게는 성이 존재할 수 없다는 식으로 억압적인 성의식을 강요해온 사회적 환경, 게다가 혼자서 살아갈만한 경제적 능력이 결핍된 여성노인들은 사별 후 아들에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만의 독립된 공간을 확보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인생이라는 발달주기 안에서 여러 종류의 상실과 아픔을 겪었을 수도 있겠지만 이별이란 언제나 극복하기 힘든 상처를 안겨주게 된다.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대신 홀로 된 여성노인들이 선택한 것은 사회에서 규정한 바람직한 여성노인 상에 자기 자신을 맞추어가며 살아가는 일인 것이다.

(5) 성의식의 변화

① *유희의 상*: 연구 참여자 중 일부는 성적 구속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면서 성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이것은 노인들의 성행위가 더 이상 생식과 관련되거나 부부간에 지켜야 할 의무와 같은 것이 아니어서 서로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가령 우리 둘이 아주 피곤하거나 하면 말로 그런 것을 풀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하는 야한 농담도 하고. (중략) 우리가 같이 노는 것을 보면 애들 같이 그래요. 젊은 애들 하는 것처럼 만지고 장난치고, 누가 보면 어린애들 소꿉장난 하는 것같이 보이기도 할 거야 (웃음). (사례 3)

② *관계의 상*: 결혼기간 중 남편으로부터 성생활이나 일상생활에서 구속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홀로 된 여성노인들은 설령 이성교제를 하더라도 마음껏 살고 있는 지금의 자유스러운 상태를 포기하고 싶지 않다고 하였다.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기능으로서 성의 의미로

보게 되면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관계로서 대화를 나누거나 사랑할 수 있는 현재의 상태에 더 만족하고 있었다.

여자가 능력이 되어야 남자랑 동등하게 말도 하고 사랑도 하고 그렇지. 나는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지금 상태가 좋아요. 모처럼 내 맘대로 활개치고 사는데 이런 것을 다시 버리고 싶지는 않아. (사례 3)

성이란 것이 남자, 여자가 만나서 자고, 그러니까 섹스하고 그렇게만 생각했다. 지금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것이라고 봐야 돼. (사례 8)

③ *성생활에서의 태도변화*: 여성노인은 교제 중인 상대와의 만족스러운 성행위를 경험했을 때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성생활에 대한 태도를 지니게 된다. 또 자신이 최근에 겪은 성경험 때문에 자위행위를 자기를 위한 하나의 행위로 생각하게 되면서 자위행위에 대한 부정적인 개념을 버리고 자신의 성욕 표출 수단으로 자위행위를 택하기도 한다.

한 달에 한 두 번은 해. 해서 아프지 않으니까 자주 하게 돼. 기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 성이야. 기력이 좀 딸려도 요즘은 사랑을 할 때 쓰는 용품들이 많잖아. 그런 것을 사용해서 하지. (사례 3)

그러면서 내가 자위를 하게 됐어. 그 전에는 아무래도 혼자서 그렇게 풀고 그러는 것을 안 좋게 생각하는 게 있었는데 생각이 바뀌더라고. 내 몸인데 내가 나를 위해 그런 행위도 못하나 싶고. (사례 8)

④ *불평등한 성역할 인식*: 사례 3의 경우 성은 두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대화로서 의사표현이 불가능하면 즐거움도 누릴 수 없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결혼생활 내내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마음에 상처를 받았던 참여자의 경우(사례 7) 배우자와의 경험을 통해 성생활이 남성 위주로 지속되어 왔음을 인식하게 되고 결혼생활에서 여성은 남성에 의존하는 종속적인 관계라고 여기고 있었다.

여자가 남자가 하란대로 하면 안돼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말로 해야 해. 그래야 서로가 좋지. 남자들은 말로 안 해주면 모르거든. (사례 3)

홀로 된 여성노인의 성

남자는 바람 피워도 당당하고 여자는 지나가는 남자하고 눈만 한 번 마주쳐도 못된 년 취급을 받는다. 세상이 참 많이 불공평하다. (사례 7)

내가 이런 저런 일들 겪고 그러면서 알게 됐지. 여자들도 여자는 이래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꼭 남자한테 얹매일 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이 바뀌었어. (사례8)

옛날부터 여자는 남자를 잘 만나야 한다고, 여자들 신세가 대개 남자들, 어떤 남편을 만났느냐 하는 것에 따라 달라졌잖아? 그런 게 있는 거 같아! (사례10)

⑤ **정서적 위안의 성**: 일부 여성노인들은 성은 부부간에 아이를 낳게 하고 부부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마음에 위로가 되어주는 감정적인 면에 치우쳐 바라보게 되며, 제어할 수 없었던 젊은 시절과 달리 성적 욕구를 쉽게 자제할 수 있게 된다. 성은 신체적인 접촉을 통한 욕구의 충족이 아닌 마음에 따뜻한 위안을 느끼게 하는 요소로 작동하게 된다.

성이라는 것이 남자, 여자에게 아이를 낳게 하고 또 서로 좋게 바라보고 살아가게 도와주는 것이기는 해도 나는 그것이 전부라고는 생각을 안 해. 나이가 들면 특히 더 그래! 마음으로다 힘이 되어주고 그런 것이 더 중요하제. (사례 7)

성이라는 것도 행위를 하는 것보다는 마음을 채워주는데 더 끌리는 면이 많이 있고, 그런 거 같다. (중략) 그런데 지금은 몸을 만지고 이러면 마음속에서부터 무엇이 이렇게 쭈욱 자라나는 것 같고 그런데, 그것이 참 따뜻하게 느껴지는 것인데. (사례 10)

⑥ **성의 초월**: 여성노인들은 성을 성행위와 동일하게 여기지 않고 단순한 성행위가 아닌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나 그 마음을 언어로 표현하는 것, 사랑한다는 말까지도 성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성을 남녀사이의 육체적인 관계에 국한시키던 것과 달리 마음이 통하는 대화 등도 성에 포함된다고 생각하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시켜주기에 마음이 통하는 동성과의 관계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육체적인 성행위에 한정되었던 성의 의미를 마음이 통하는 대화를 나누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 성차를 떠나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연결시켜주는 하나의 통로로 기능하는 것으로 보게 되었다.

내가 생각하기로 여자가 남자를 아껴주고 위하는 마음이나 남자가 여자를 아껴주는 마음을 말로 하는 것도 성인 것 같애. (사례 3)

요즘 보면 여자끼리도 애인이고 남자끼리도 애인이고 그러더라. (중략) 있으면 의지가 되고. (중략) 젊어서 남편에게 의지하던 그런 것을 여자친구가 대신 해 주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 남편처럼 듬직하고 소중한다니까. (사례 7)

지금은, 성은 또 서로 마음이 통하는 대화를 나누고 어떤 역할을 하고 그러는 것도 다 성이라고 생각한다. 마음과 마음이 통하면서 육체적으로도 그것이 가능하다. (사례 8)

할머니들이야 다 편하지. 살아온 경험이나 이런 저런 이야기들 하면서 서로 공감이 많이 가고 그러니까. (사례 9)

늙을수록 앞으로 죽음하고 맞닥뜨릴 날이 가까우니까 누군가 곁에 있어주었으면 하겠지. 그게 남자건, 여자건 별로 상관없을 거 같아. 나도. 마음이 통하고 그런 상대라면. (사례 10)

⑦ *시대 변화에 적응*: 여성노인 중 일부는 강압적이고 난폭했던 남편들과의 결혼생활에 지쳤던 탓으로 사별 후에는 남성과의 친근한 관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히려 동성과의 교제를 선호하게 되었다고 보인다. 또 성에 대한 생각도 시대 변화에 따라 달라지다 보면 지금처럼 남녀의 결합만이 정상적으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동성 간의 결합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날이 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사람이 아무리 변하지 않는다 해도 세상이 바뀌면 사람도 다 변하게 마련이지. 내가 늙어서 애인이 생길 줄 누가 알았겠어? 그러니 앞으로 또 바뀔 거야, 아마. (사례 3)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면서 생겨난 일인데 여자들끼리의 사랑을 뭐라고 그럴 수 있나? 나중에 아주 나중에 세상이 바뀌어갔고 여자가 남자보다 여자를 더 좋아하고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세상이 올지. 그건 알 수 없는 일이지. (사례 7)

솔직히 무디고 난폭하기만 한 남자보다 여자가 좋다고 하면 그럴 수도 있잖을까 싶은데. 남자는 정말 싫고, 마음 가는데 몸이 따라가고 그러는 법이니 마음이 끌리면 당연히 몸도 끌리고 그러겠지. (사례 8)

홀로 된 여성노인의 성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섞여서 살아가니까. 내가 아는 할머니만 해도 남자친구가 있고, 둘이 데이트도 하고 그런다는데, 예전 같으면 그게 흥이 될 일이지 자랑삼아 떠벌일 일이 아니거든. (사례 9)

세상이 많이 변해서 동성끼리 사랑하고 그러는 것인가? 다들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살다보니까 그러는 것인가? 세상이 변하니 우리도 거기 따라가야 하는가? (사례 10)

연구 참여자인 여성노인들에게 성의 의미는 단순하지 않고 복잡적으로 나타나는데, 단순히 육체적 성행위에 국한되지 않고 사랑과 같은 정서를 포함한 광의적인 의미로 전환되어졌다. 성욕이 감소되고 성적 충동들을 절제할 수 있게 된 노년기의 성은 감정적인 위안을 주는 요인으로서 작동하게 된다. 또 성은 한 사람이 살아오면서 경험한 사회문화적 영향도 그 의미에 포함되며, 그 사람을 특징짓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연결을 시키는 통로의 기능을 한다고 보았다. 홀로 된 여성노인들 중 일부는 노화과정인 폐경을 통해 생식과 같은 성적 구조속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면서 성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었다. 이제 상대방에게 반드시 치러야 하는 의무가 아님을 알기에 서로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놀이의 성으로 변하게 된 것이다.

연구에 참여한 여성노인들은 결혼제도를 통해 또한 한국사회의 이중적 성규범으로 인해 자신들의 불평등한 성역할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들 중 일부는 교제중인 상대와의 만족했던 성행위의 경험을 통해서 성생활에 있어서 적극적 태도변화를 보이게 되었는데, 이런 적극성은 자신이 아직 성행위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서 비롯된 것이다. 한편 성을 심리적 위안의 요인으로 여기면서, 성행위를 통한 육체적 끌림보다 접촉을 통하여 형성되는 친밀성에 더 끌리게 된다. 신체적 접촉을 통하여 형성되는 친밀성에 끌리는 경우 남성들에 대한 반발로 인하여 동성과의 교제를 선호하게 되기도 하며, 그로 인해 남자 대신 동성의 친구를 통해 성적 접촉을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성에 대한 생각은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고 보면 지금처럼 이성애만을 정상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동성 간의 결합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자신의 존재성을 상징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성이라는 커다란 틀

안에서 여성노인들은 폐경이나 배우자와의 사별 등으로 인한 성생활 빈도의 감소로 인해 자신을 무성적 존재로 느끼게 된다거나, 노인은 무성적 존재라는 사회의 인식을 수용하다가 자신의 성욕이 지속되고 있음을 재인식하는 등 성적 변화의 양상을 경험하게 된다. 노화에 따르기 마련인 성적 변화의 양상들은 홀로 된 여성노인들 스스로 성적 존재임을 자각하게 하고, 사별이나 폐경의 경험으로 인한 자유로움과 호기심 등은 성욕 표출 양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홀로 된 여성노인에게 있어 성적 존재로서의 자각은 모든 인간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욕을 표출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며 또한 노년기의 성적 변화의 양상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여성노인들은 성욕을 표출하는 과정에서 순결이데올로기나 노화의 이중기준 같은 사회문화적 환경을 인식하고 수용하게 되면서 심리적 갈등을 일으키기도 한다. 여성노인의 성에 있어서 본질적 구조를 이루고 있는 여러 구성요소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여성노인 각자의 성의식에 있어서 변화를 일으키게 한다.

이처럼 여러 구성요소들이 추출되는 과정에서 여성노인의 성욕표출 유형은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났는데, 성욕표출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는 ‘노화에 따른 성적변화의 양상’이나 ‘성적 존재로서의 자각’과 같은 구성요소를 이루는 부분에서 서로 다른 하위 구성요소들이 존재하였다.

논 의

본 연구는 여성노인들 특유의 경험에 중점을 둔 심층면접을 통해 홀로된 여성노인들이 성욕을 표출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성의식의 변화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홀로 된 여성노인의 성에 대한 본질적 의미를 살펴보았다. 우선 홀로 된 여성노인들이 스스로를 성적 존재로 자각하게 되고 성욕을 표출하는 과정에서 심리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사회문화적 환경을 수용하면서 성의식에 변화가 일어나기까지를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홀로된 여성노인들에게 있어서 성은 존재로서의 의미를 지니

홀로 된 여성노인의 성

고 있다고 여겨진다. 의미 있는 타인의 상실로 인하여 사회적 지원망이 협소해지는 노년기의 여성에게 성은 타인과의 의사소통을 실현시키며 새로운 사회적 지원망을 구축해가는, 즉 관계지향적인 여성의 특징에 들어맞는 통로의 기능을 하게 된다. 이러한 결과는 여자노인이 남자노인보다 친구관계가 좀 더 활발하고 정서적으로 친밀하며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특히 이혼하거나 배우자가 없는 노인의 경우 친구관계를 더욱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 Connidis와 Davies(1990)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둘째, 홀로 된 여성노인들은 자신을 성적존재로 자각하는 점에서는 성욕을 인식하거나 성을 존재의 의미로 생각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었지만 자신의 성욕을 표출하는 방식에 있어서 다양성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 홀로된 여성노인이 성욕을 표출하는 양상은 직접적 성행위나 자위행위와 같은 방법을 선호하는 표출형, 성적 환상이나 가벼운 신체적 접촉을 통한 정서적 위안을 원하는 승화형, 그리고 대체적인 활동을 통해 성욕을 억제하는 억제형의 세 가지로 나타났다.

셋째, 홀로 된 여성노인들은 성욕 표출 과정에서 자신의 욕구와 사회문화적 환경이 주는 제약 사이에서 갈등을 느끼게 되는데 이처럼 사회문화적 환경을 많이 고려하는 여성노인들은 자신의 성욕을 억제하거나 성적 환상을 통해 승화시킨다. 이런 경우 서로 공감할 수 있는 동성 친구를 통한 새로운 사회적 지원망에 의미를 두게 된다.

넷째, 여성노인들이 성욕을 표출하는 유형별로 성의식의 변화에 약간의 차별성이 드러나는 것으로 보인다. 성욕 표출형에서 주목할 만한 성의식의 변화는 성을 '유희의 성', '관계의 성'과 같은 의미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점이다. 또한 성욕표출형의 참여자들은 '성생활에서의 태도변화'를 보이게 되는데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방식으로 자신들의 성욕과 성욕표출방법을 생각하게 된다. 성욕억제형 및 승화형의 참여자들이 보이는 성의식의 변화는 '정서적 위안의 성'의 의미이다. 이것은 성생활을 거의 하지 않는 그들의 특성상 성을 육체와 연결된 개념으로부터 해방시켜 정서적 특질을 부여한 것으로 보인다.

노화에 따른 성적 변화를 경험하면서 여성노인들은 스스로의 성욕을 인정하고 여러 가지 시각 자극들에 대한 반응을 통해 홀로 노년기

를 지내고 있지만 자신이 여전히 성적 존재라는 사실을 자각한다. ‘성욕승화형’의 여성노인들은 환상을 품거나 혹은 접촉을 통한 정서적 위안을 통해 성욕을 승화하는 수동적인 방식으로 욕구를 해소하였다. ‘성욕표출형’의 여성노인들은 이성교제를 하고 있었으며 직접적인 성행위, 혹은 자위행위를 통해서 성욕을 표출하면서 노년기의 성생활을 보다 적극적으로 즐기고 있었다. 반면 ‘성욕억제형’의 여성노인들은 대체적 활동을 통해 자신의 성욕을 억누르거나 저절로 사라지게 유도하고 있었다.

홀로 된 여성노인들은 대부분 이성애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지만 사회가 여성노인들에게 부여하는 노화의 이중기준과 순결이데올로기를 수용하면서 먼저 죽은 남편에 대한 죄책감과 같은 심리적 갈등을 느낀다. 나이트 여성들은 자신들이 살아오는 동안 그 기준들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사회가 요구하는 그 기준에 부합할 때까지 자신의 활동을 제약하게 되며 그것을 자신의 의지로 착각하게 되었다.

홀로 된 여성노인들은 생식과 같은 성적 구속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면서 인간에게 자연스런 본능이라는 성 인식을 통해 이제 서로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유희로서 성을 생각하게 되었다. 성적 욕구가 감소되고 성적 충동들을 절제할 수 있게 된 노년기의 성은 감정적인 위안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여성노인 중 일부는 교제중인 상대와의 만족했던 성행위의 경험을 통해서 지속적인 성생활을 할 만큼 성생활에 있어서 태도변화를 보이게 되었으며, 한편으로 성을 심리적 위안을 주는 요인으로 생각하게 되면서 신체적 접촉을 통하여 형성되는 친밀성에 더 끌리게 된다. 그런 경우 동성과의 교제를 선호하게 되기도 하며, 그로 인해 남자와의 관계 대신 동성의 친구를 통해 성적 접촉을 하려 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성에 대한 생각은 시대가 변화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고 보면 지금처럼 이성애만을 정상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동성 간의 결합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도 하며 시대의 자연스런 변화에 부합한다.

본 연구결과 홀로 된 여성노인이 성욕을 표출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성의식의 변화를 통해 경험되어지는 성은 관계로서, 정서적 위안을 주는 의미로서 여겨지며 또한 성을 통하여 자신의 존재 가치를 재

홀로 된 여성노인의 성

인식하게 되며 친밀한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새로운 사회적 지원망을 형성하게 하는 통로로서 기능하기도 함을 알 수 있었다. 노년기를 오랜 기간 홀로 지내야 하는 여성들에게 성이 이렇듯 다차원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이해한다면, 홀로 된 여성노인의 성을 수용함에 있어 새로운 인식의 전환이 필요함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홀로 된 여성노인들의 성에 대한 인식의 전환만이 그들이 필요로 하는 적절한 상담과 지지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며, 곧 노인인구 비율이 20%를 넘어가게 될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사회적, 국가적 차원의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학문적 기반이 되어줄 것이다.

참 고 문 헌

- 신성례 (1996). 노인의 성에 대한 고찰. *삼육대 논문집*, 28, 137-143.
- 이윤숙 (1990). *노인과 성*. 서울: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편).
- 통계청 (2000).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서울: 통계청.
- 통계청 (2001). *장래인구추계*. 서울: 통계청.
- Altschuler, J., Katz, A. (1996). Sexual secrets of older women: Counter transference in clinical practice. *Clinical Gerontologist*, 17 (2), 51-67.
- Connidis, I. & Davies, L. (1990). Confidants and companions in later life: The place of family and friends. *Journal of Gerontology*, 45, 141-149.
- Creswell, J. (1998).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tradition*. London: Sage.
- Ebersole, P., & Hess, P. (1994). *Toward healthy aging: Human needs and nursing response*. St. Louis: C. V. Mosby.
- Fookien, I. (1994). Sexuality in the later years-the impact of health and body-image in a sample of older women. *Patient Education and Counseling*, 23, 227-233.
- Giorgi, A. (1985). *Phenomenology and psychological research*. In A. Giorgi (Ed.). Pittsburgh, Philadelphia: Duquesne University

Press.

Lincoln, Y. S., & Guba, E. (1985). *Naturalistic inquiry*. Beverly Hills, California: Sage.

Nay, R. (1992). Sexuality and aged women in nursing homes. *Geriatric Nursing*, 13(6), 312-314.

Sexuality for the Elderly Women who Have Been Single

Kyung-Hee Lee

Gahyun Youn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Department of Psychology

Songwon Colleg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with phenomenological approach focused mainly on exploring sexuality for the elderly women who have been living single, especially exploring if their concepts or understandings on sexuality have been changed or not through the vicissitudes of life. The selected single elderly women were bereaved or divorced, cognitively intact, over 65 years old, and community-dwellers in Gwangju metropolitan area in Korea. Fifteen interviewees were selected by the convenience sampling principle, but data were analyzed from the interview documents of the five single elderly women. Five domains and 26 sub-constituents were extracted from the data analysis based on 4 concrete stages presented by Giorgi(1985). The domains were ① aspects and/or changes in sexual patterns by aging, ② self-awareness as sexual being, ③ types of expressing sexual desire, ④ acceptance of social-cultural expectations, and ⑤ changes of sexual concepts.

(원고접수일: 2006년 9월 5일)

(수정원고접수일: 2006년 10월 12일)

(원고게재승인일: 2006년 10월 25일)